전문의약품

폴마렉스 캡슐
(폴마록시브) 2밀리그램

2022.06.09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캡슐(277mg) 중
• 유효성분 : 폴마록시브(일규) 2mg
• 기타 첨가제 : 규화미결정셀룰로오스, 탤크, 캡슐제

【성 상】
흰색에서 연한 노란색 가루가 든 상하부 흰색의 경질캡슐제

【효능 · 효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선택성 COX-2 억제제인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개개 환자의 전반적인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 참고).

【용법 · 용량】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약 및 다른 대체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의 복용량과 노출기간이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위험도가 커지므로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 투여한다. 이 약은 6주 이상의 유효성 및 6개월 이상의 안전성 자료가 부여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 약 투여 시 최소한 매달 정기적으로 환자의 증상경감에 따른 투여 지속 여부 및 치료제 대한 이점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성인 :
권장용량은 1일 1회 2mg이며, 식후에 투여하도록 한다. 1일 복용량 2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권장용량에서 치료적 유익성이 없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대체치료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장애 및 신장애 환자 :
투여경험이 없으므로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매일 세번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여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의 유발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약물은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 투여 용량, 기저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서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유효용량으로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증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가슴통증, 숨참, 쇠약, 불명료한 발음)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처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3) 위장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약물은 위 또는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 단기 투여 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명치의 통증, 소화불량, 흑색변, 토혈을 포함한 임시적인 증상 또는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같은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해야 한다.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설폰아드계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환자
3)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 포함)에 대하여 천식, 급성 비염, 비폭 혈관, 혈관부종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4)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및/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5) 부종 또는 체액저류 환자
6) 간장애 환자
7) 신장애 환자
8) 활동성 소화성 궤양 또는 위장관 출혈 환자
9)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10) 올철십무전 환자(NYHA II – IV)
11) 확립된 허혈성 심장질환자, 말초성 동맥질환 환자 및/또는 뇌혈관 질환자
1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13) 수유부
14)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15) 고칼륨혈증 환자
16) 혈액응고 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기관지 천식 환자
2) 심부전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고혈압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4) 부종 병력이 있는 환자
5) 이노베나 ACE 저해제를 투여중인 환자
6) 저혈압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
7) 탈수 환자
8) 고령자
9) 소화성궤양이나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10) 심혈관계 이상반응(심장마저, 말초성 동맥질환 환자 및/또는 뇌혈관 질환자
11) CYP3A4에 의한 대사가 이려운 환자
12)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 약물 복용시 어떤 생식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
13) 당뇨병 환자

4. 이상반응
1) 이 약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6이경을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이 약의 최대 투여기간은 24주이며, 2~3주까지의 투여기간에 해당하는 활성 자기 가장 많았다. 위약 또는 활성 대조약과의 비교임상시험에 의하면, 이상반응으로 인한 약물투여를 중단시킨 이상반응 총 가장 빈번한 것은 상부부 통증과 소화불량이었다.
이 약의 골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발현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매우 흔히 게는(≥1/10), 흔히게는(≥1/100, <1/10), 흔히지 않게는(≥1/1000, <1/100), 드물게 (≥1/10,000, <1/1,000), 매우 드물게(<1/10,000)
(표1)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발현기관	이상반응	발현빈도
감염	비인두염	흔하게
	폐렴, 방백선증, 기관지염, 연조직염, 종기,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매독, 요로감염, 손톱진균	흔하지 않게
양성 및 악성 상태물	대장 선종	흔하지 않게
혈액 및 림프계	빈혈	흔하게
	피부 무두증	흔하지 않게
면역계 장애	호산구 증가증, 과민반응	흔하지 않게
대사 및 영양계	화학약물 일괄치,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칼륨혈증	흔하지 않게
정신계 장애	우울한 기분, 주요우울증	흔하지 않게
신경계 장애	두통	흔하게
	불면, 감각이상, 의식적 우울상태, 어지러움, 졸림, 둔한, 말더듬이더형 지체, 진전	흔하지 않게
시각장애	눈부종, 눈꺼풀부종, 눈꺼풀염, 눈꺼풀염, 눈마름, 각막염, 홍반원증	흔하지 않게
귀 및 미로장애	귀 불편감, 체위성 어지럼증	흔하지 않게
심장 장애	두근거림, 심실증, 우심방근 심근병증	흔하지 않게
위장 장애	상복부통, 설사, 소화불량, 오심, 복통	흔하게
	구토, 장운동 장애, 과민성 장증후군, 대변 변색, 식중독, 위궤양, 십이장궤양, 치아 장애, 입술염, 장염, 상복부 불편, 위염, 복부불편감, 하복부통, 아프타성 구내염, 변비, 위식도역류증, 대장염, 식도염	흔하지 않게
간 및 담도계 장애	고빌리루빈혈증	흔하지 않게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얼굴부종, 두드러기, 홍반, 신경피부염, 가려움, 전신가려움, 건조습진	흔하지 않게
근골격 및 연결조직 장애	관절통, 등 통증, 팽발, 관절부은, 목통증, 팔다리 통증, 목저근통, 근골격 통증, 추간판팽출, 퇴니아, 근경련	흔하지 않게
신장 및 요로계	빈뇨, 면상 신체전, 미세입뢰빈도통, 요로결석	흔하지 않게
성식 및 유방계	유방통증	흔하지 않게
전신 및 투여 부위	흉부 불편감, 얼굴 부종, 부종, 말초 부종	흔하게
	피로, 전신 부종, 안륜유연자 유사 질환, 체중 증가, 무력증, 갈증, 타박상, 찰과상, 염장, 교통사고, 척수 압박 골절, 오한, 발열, 발래활동, 낙천병, 인대파열, 인대염좌, 염장, 손목골절	흔하지 않게
검사	열감, 약물과다복용, 호흡구 증가, 물포화 혈결합능 감소, 프로트롬빈시간 연장, 혈당글루빈 감소, 알카인포스타제 증가, 크레아틴인산활성화효소(CK) 증가, 이소프리테미이어노먼이효소 증가, 크레아틴인산활성화효소 증가,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	흔하지 않게

2) 이 약의 투여기간에 따른 이상반응 발현빈도를 비교한 결과, 6주 투여 시 보다 24주 투여하였을 때 비인두염, 빈혈, 두통, 상복부통, 등 통증 및 흉부 불편감의 발현빈도가 1%이상 증가하였으며, 두근거림, 현심증, 고혈압, 혈압상승, 혈압이상반응의 발현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3)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의하여 6년 동안 3,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 상관없이 7.66% (25건/3,269명, 285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외의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 빈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하였다.

발현빈도	기관계명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0.03%(1/3,269명, 1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외의 못한 약물이상반응 0.43%(14/3,269명, 14건)
	신경계 장애	뇌졸중	뇌출증, 지각 이상, 감각 저하
드물게 (0.01~0.1% 미만)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발진, 약물 발진, 피부 너란
	심장 장애		빈맥
	눈 장애		결막 충혈
	위장관 장애		위장관 장애, 복부 팽창
	대사 및 영양 장애		식욕 감소
	정신 장애		백일몽
	신장 및 요로 장애		배뇨 곤란

5.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약 및 다른 대체 치료법의 장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의 복용량과 노출기간이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위험도가 커지므로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 최소 유효 용량으로 투여한다. 이 약은 6주 이상의 유효성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여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 약 투여 시 고혈압, 혈식장, 부종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약의 투여 시 이 약은 6주 이상의 유효성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여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 매달 정기적으로 환자의 증상경감에 따른 투여 지속 여부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심혈관계 사례의 유의한 위험요소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가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 깊게 고려한 후에 이 약을 투여하여야 한다.
2) 고령자 및 신장기능 장애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에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치료 도중 증상이 악화될 경우 치료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위장관계 이상반응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광범성 실환이나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시 극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화성 궤양 질환 및/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 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시 위장 출혈, 궤양 또는 기타 위장관계 합병증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인자를 증가시키는 다른 위험인자로는 급구장 고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항응고제 병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또는 아스피린의 병용 알코올 섭취, 흡연, 고령, 허약한 건강상태 등이 있다. 치명적인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자발적 보고의 대부분은 고령자 및 허약자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고혈압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유해사례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티아지즈계 이뇨제 또는 루프계 이뇨제를 복용중인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시 이들 요법에 대한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약 투여 초기와 투여기간 동안에 혈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 약 투여 중 혈압이 유의하게 상승한 경우에는 대체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5) 혈혈상부전 및 부종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체액 저류 및 부종이 관찰되었다. 이 약은 부종이나 체액저류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저해로 신기능 장애로 신기능의 악화 및 체액저류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 약은 심부전, 좌심실 기능 장애, 또는 고혈압과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주의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증상이나타는 환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약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혈학이 손상된 환자에서 이 약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7) 간기능 : 간기능 장애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지혈구 검사(CBC) 및 화학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기능 간 효소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사수치는 치료가 지속됨에 따라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일시적일 수 있다.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는 신기능 장애로 신기능의 악화 및 체액저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투여 중단 후 회복된다.
9) 수술 후 통증의 경우 :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인한 선택성 COX-2 억제제의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직후 최초 10~14일까지의 통증 치료를 위한 큰 규모의 통제된 임상시험 두 건의 결과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10) 정기적 혹은 빌요에 따라 임상경사로검사, 혈액검사, 신장기능 검사, 간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및 대변잠혈검사 등을 실시해,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약이나 투여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11) 이 약을 복용하고 어지러움, 졸음 등을 경험한 환자들은 운전이나 기계를 다루는 일은 피해야 한다.
12) 이 약이 임상시험결과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이 약은 혈소판에 대한 작용이 지혈된 바 없으므로 심혈관계에 대한 이상발반으로서 이스피린이 대체 약물이 될 수 없다. 항혈소판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는 그 치료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13) 스정진통제의 의한 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임에 유의한다.
14) 교차민감도 : 하나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감수성을 가진 환자는 마찬가지로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도 감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
15) 자가면역질환 환자에, 전신홍반루프스(SLE) 및 혼합결합조직병(MCTD) 환자가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시 무균수막염의 발병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16)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당뇨병 환자 또는 혈중 칼륨농도를 증가시키는 약물과 병용투여 시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칼륨 수치의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17)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여성에서 임시적인 불임이 보고되었다.
18) 이 약은 시력 영향에 대한 임상시험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허가된 용법 · 용량을 준수하여 식후에 투여하도록 한다.

6. 상호작용
1) 이 약은 주로 간에서 CYP3A4 이 의해 대사되므로, CYP3A4를 억제하는 약물과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2) 키토코나졸 400 mg 을 1 일 1 회 병용투여 시 키토코나졸 에 의해 이 약의 CYP3A4를 통한 대사가 억제되어 이 약의 AUC가 1.3 배 증가되었으므로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약과 키토코나졸의 병용투여 시 약물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약과 케토코나졸의 병용투여 시 T_{max}(정점값)는 71.9시간으로, 단독투여 시의 9시간보다 연장되었으므로, 케토코나졸과 병용투여 시 치료반응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주의한다.
3) 생체 외(in vitro) 연구에서 이 약의 임상용량에서의 혈중 노출 농도에서 주요 CYP 효소들(CYP1A2, 2C9, 2C19, 2D6 등)의 저용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 내(in vivo) 시험에서는 연구된바 없으므로, 다른 약물과 병용 투여 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II 수용체 길항제의 항고혈압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II 수용체 길항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탈수증자 또는 고령자에게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와